

업계뉴스

■ (주)중앙케미칼



제6회 대리점 직원 교육 실시

(주)중앙케미칼은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 흥인관광호텔에서 제6회 대리점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40개 대리점에서 모두 62명의 영업사원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번 교육에서는 양계질병과 새로운 백신 프로그램(오우영 영업이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돼지 호흡기질병과 양돈 생산성 향상방안(정현규 도드람 양돈 크리닉 수의사), 대가축 기생충(가축위생연구소 기생충과 강승원 박사), 판매기법(노선호 상무)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대리점 사장단 해외연수 실시

(주)중앙케미칼은 23명의 대리점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간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동사는 박종영 부사장과 주대웅 영업부장의 인솔로 중국의 축산 현장과 농장을 둘러보았다.

“중앙양축 가이드” 발간

동사는 구랍 15일 기술정보지인 중앙양축 가이드 겨울호를 발간했다. 겨울호에는 돼지 번식장애, 돼지의 호흡기질병 방역과 대책, 신제품(이보맥 프리믹스) 소개 등이 실려 있다.

■ 축산물 등급판정소

축산물 등급판정사 보수교육 실시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지난 해 11월22일자로 도체등급 판정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개정된 등급기준을 등급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구랍 12일부터 24일까지 등급사들을 상대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본소 19개 출장소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새로 개정된 법규와 소, 돼지 도체등급 판정요령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이 있었다.

축산물 등급제 확대시행에 따른 관계자 교육 실시

축산물 등급판정소는 축산물 등급화 거래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등급판정의 원활화를 위해 등급판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유통업자, 도축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랍 5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물 등급제의 필요성과 등급화 거래규정 고시 내용, 등급판정 기준 및 적용조건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미트저널사

제1회 식육경연기술대회 개최

미트저널사는 지난 12월 8일 KOEX 3층 대서양관에서 제1회 식육경연기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농림수산부가 후원하고 본회와 축협중앙회 등 관련업체의 협찬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예산부문을 통과한 22명의 참가자가 자신들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날 기술경연대회는 발골·정형, 진열상품 만들기,

요리 만들기 부문으로 개최되었는데, 돼지 발골·정형 부문 최우수상에는 (주)진주의 강양근씨가 차지하였고 소 발골·정형부문에는 축협공판장 축산물집배사업소의 최인호씨가, 진열상품분야는 광성필씨(LG백화점), 요리만들기 분야에는 정수근씨(인터컨티넨탈호텔)가 영광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브랜드육의 전시·판매도 병행 실시하여 우리나라 브랜드육을 한 눈에 보고, 맛을 볼 수 있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에게 우리 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축산기자재협회

농림수산부에 축산기자재 전담부서 설치 건의

한국 축산기술자협회(회장 : 양창옥)는 최근 축산기자재산업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농림수산부 축산국내에 축산기자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줄 것 등의 방안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건의서 내용에 따르면, 농기계는 농정국 농업기계과와 농기계조합·농기계학회·농협중앙회 영농기계사업단이 유기적 관계를 유지, 농기계 반값적용을 확보하는 등 농기계시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축산기자재는 전담부서가 없어 양축가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국내에 전담부서 설치 ▲농업자재검사를 이용, 성능검사로 표준화 유도 ▲산학협동으로 자동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바이엘화학(주)

'94 사보 대상 특별상 수상

(주)한국바이엘화학은 동사에서 발간되는 『사보 바이엘화학』이 '94 사보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94 사보 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인 한국 PR협회지장상을

수상한 『사보 바이엘화학』은 1978년 10월 바이엘 서비스로 창간되어 축산인들에게 종합기술정보지로서 제공되고 있고 축종에 따라 중소가축편, 대가축편, 수의사편, 바이엘 양어정보 4가지로 나누어 발간되고 있다.

바이엘 클로버 서비스 『고객의 전화』 변경

'93년 6월에 개통했던 바이엘의 클로버서비스 『고객의 전화』가 바이엘이 본사를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전화 : (080)822-8590

▲이용시간 : 월~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 30분~5시까지), 전화요금은 무료.

■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에 박석남씨 재선출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지난 11월2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동 협회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개선허는 한편, '95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회장에 박석남 현 회장을 재선출하고 부회장에 유창열씨와 장지식씨를 새로 선출했다. 또한 상근 부회장에 현 부회장인 유동준씨를 유임시켰다.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식품위생법 개정(안) 반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시민의 모임)은 최근 보건사회부가 냉동식품의 보존온도를 -18℃ 이하로 낮추면서 유통기한을 9개월(가열냉동소시지는 예외 : -15℃이하, 3개월)로 연장하려는 등 식품위생법 중 식품의 유통기한 기준·규격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민의 모임은 서울시내 16개 대형백화점의 식품매장에 설치된 78개 냉동고와 냉동식품의 보존온도 실태

를 조사한 결과 70.5% (55개)의 냉동고가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 및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하 15℃ 이하 또는 18℃ 이하 등의 냉동식품 보존온도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의 모임은 백화점 냉동고조차 영하 18℃ 이하로 보존할 수 있는 냉동고는 12.6%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사부가 앞으로 냉동식품을 영하 18℃ 이하로 낮추면서 유통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사부의 입안 예고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애니멀 & 컨설팅

수원에 사무실 내고 개업

축산농가들에게 가축 질병과 경영지도를 해 줄 한국 애니멀 & 컨설팅 회사가 수원에 설립되었다. 그동안 사료회사와 종돈업계에 근무하면서 양축농가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김태주수의사가 설립한 이 회사는 앞으로 WTO체제 출범과 함께 닥칠 피나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농가 기술 지도를 하게 된다.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3-9
- ▲ 전화 : (0331)221-1872/3, 33-9228
- ▲ FAX : (0331)221-1873
- ▲ 핸드폰 : 011-253-5358

■ 축협중앙회

축산물 등급판정업무 이관

축협중앙회(회장 : 송찬원)는 축산법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중축개량협회가 시행해오던 축산물 등급판정업무를 12월1일자로 이관받아 업무를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축협중앙회는 12월2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이관식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축협중앙회 송찬원회장은 12월1일 소회의실에서 축산물 등급판정소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축산물 등급판정소(소장 : 박태진)는 관리부와 업무부를 두고 있다.

■ 제일제당(주)

정약희 서울사료사업부장 이사로 승진

제일제당(주)은 구랍 1일 정약희 서울사료사업부장을 이사로 승진, 발령했다.

정약희 이사는 지난 1978년에 제일제당에 입사한 이래 사료충청영업국장, 호서사료사업부장, 군산공장장, 서울사료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축산업과 사료시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한국중돈무역

주소, 전화 변경

한국중돈무역(대표 : 원성오)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193-4 (삼산빌딩 601호)
- ▲ 전화 : ○ 사무실 : 02)692-6929
○ 자택 : 0331)261-3226
- ▲ FAX : ○ 자택 : 0331)261-6842

■ (주)필산

캐나다 Jenetiporc사로부터 종돈 64두 도입

(주)필산(대표 : 추태호)은 캐나다의 전문 육종회사인 Jenetiporc사로부터 듀록, 대요크셔, 랜드레이스 등 3개 품종의 종돈 64두를 도입했다. Jenetiporc사는 퀘벡주에 위치한 캐나다 최대의 육종회사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종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종돈을 수입하는 종돈장은 유전자원(주), (주)선진원종, 코리아화암, 대월종돈장, 한일축산 등 5개 농장이다. 동사는 앞으로도 계속 종돈을 수입할 예정이다.